

洗心亭 관련 한시에 나타난 공간감성과 그 의미

최 은 주*

- I. 머리말
- II. 세심정과 관련 한시 현황
- III. 한시를 통해 본 세심정의 공간감성
- IV. 세심정에 나타난 공간감성의 의미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경남 산청의 洗心亭을 문학창작공간으로서 주목하여, 관련 한시를 통해 그 공간에서 생성된 공간감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세심정은 경상남도 산청의 德川書院 근처에 위치했던 정자로, 그 명칭에서부터 공간이 지향하고자 했던 바를 알 수 있다. 또한 덕천서원이 南冥 曹植을 기리기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도 이 정자에서 생성되는 감성이 남명과 관련한 것이 다수를 이룰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공간은 인간의 체험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며, 이때 공간과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이 바로 공간감성이다. 공간감성은 공간의 성격과 시간의 흐름, 인식하는 주체인 작가에 따라 다양하게 드러나는데, 현재 남아 있는 세심정과 관련된 60명이 넘는 작가들이 지은 74제의 한시 작

*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 skyey0324@koreastudy.or.kr

품에서도 이러한 면모를 잘 볼 수 있다.

세심정은 누정의 명칭이 ‘세심’이라는 점과 그 위치와 건립의 목적이 덕천서원과 긴밀한 관련을 지닌다는 점에서 도학감성이 주도적으로 생성된 공간이었다. 대부분의 누정이 주변 경관을 중심으로 작품이 창작되는 데 반해, 세심정은 누정의 위치와 명칭에서 생성되는 감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한 곳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18세기 이후 창작된 작품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통해 1871년 덕천서원의 훼손 후에도 세심정은 서원에 대한 감성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명 사후 그가 추구했던 사유와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하나의 구심체 역할을 하던 서원을 중심으로 한 문화공간에 세심정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확연히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 주제어

세심정, 마음[心], 공간감성, 남명 조식, 덕천서원

I. 머리말

마음은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정서에 있어 중요한 개념이며, 동양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핵심 개념이기도 하다. 선인들은 마음이란 무엇이며, 그 마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탐구하였다. 중국 송대부터 시작되어 조선시대 유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心學의 전통 역시 마음을 잘 다스려 한 차원 더 높은 인격적 존재로의 성취를 그 목적으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心’은 다양한 명명행위에도 주요하게 사용되었다. 오늘날에도 그러하듯이, 명명행위는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따라서 건물이나 자연물 등에 이름을 붙일 때 마음을 넣어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고자 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볼 洗心亭은 경상남도 산청의 德川書院 근처에 위치했던 정자이다. 정자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공간이 지향하는 바는 바로 마음이었다. 특히 이 정자는 덕천서원을 건립하면서 遊息의 공간을 염두에 두고 지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덕천서원은 曹植(南冥, 1501-1572)의 사후에 그를 기리며 학문과 기상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추모와 교육의 공간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 정자의 건립이 지향했던 바를 그 명칭에서부터 일정 부분 짐작해 볼 수 있다.

특정한 건물이 생겨날 때 건물의 건립 취지와 방향은 그 명칭에 반영되고, 이는 공간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영향은 이 공간이 문학작품의 생성공간으로 기능할 때 매우 크게 작동한다. 공간은 인간 행위의 바탕이 되는 동시에,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공간에서 창작된 작품일지라도 공간에 대한 인식은 때로는 유사하게, 혹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는 특정 공간에서 발생하는 공간감성이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의 개별 상황마다 달리 생성된 공간감성은 작품의 창작에 일정하게 개입하게 된다. 공간감성은 공간의 성격과 시간의 흐름, 인식하는 주체인 작가에 따라 다양하게 드러난다.

세심정과 관련하여 창작된 문학작품에서도 다양한 감정들이 드러나는

데, 이를 통해 당대인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던가를 살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세심정이라는 공간만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접근한 문학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덕천서원을 다루면서 관련 공간으로서 이 공간이 지닌 의미를 살펴본 연구들이 몇 편 있을 뿐이다. 최석기는 남명 유적지를 남명순례길로 명명하고 각각의 공간들과 관련된 작품들을 모아¹⁾ 펴내는 한편, 덕천서원에 주목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간인 세심정을 다룬²⁾ 바 있다. 이는 남명과 관련된 작품들을 공간에 따라 소개하고, 간략한 설명 등을 통해 그 공간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김학수는 남명학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덕천서원의 문화사적 의미를 검토하면서 세심정을 비롯한 공간들을 간략하게 소개³⁾한 바 있다. 이들 선행 연구는 전체적인 작품 규모를 파악하고, 덕천서원과 관련된 공간들의 대체적인 성격과 의미를 살피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서 세심정 관련 한시에 나타난 공간감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세심정 관련 한시의 현황을 개관해 보고자 한다. 이어서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세심정의 공간감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그 의미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학생성공간으로서의 세심정에 대한 이해의 편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 1) 최석기, 『남명순례길의 노래2 도학의 성지, 덕산에서』, 경인문화사, 2017.
 - 2) 최석기, 『덕천서원』, 경인문화사, 2015.; 최석기, 「덕천서원의 공간과 명칭에 담긴 의미」, 『남명학연구』 55,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17.; 최석기, 「지리산 덕산동의 文化元型和 名所의 의미」, 『남명학연구』 63,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19.
 - 3) 김학수, 「덕천서원(德川書院): 경의학(敬義學)을 지향한 조선의 학술문화공간」, 『남명학』 20, 남명학연구원, 2015.

II. 洗心亭과 관련 한시 현황

세심정은 덕천서원 남쪽 시냇가에 위치했던 정자로, 당시 서원의 건립을 주도하였던 崔永慶(守愚堂, 1529-1590)에 의해서 세워졌다. 덕천서원은 남명 사후 1572년 4월에 건립에 대한 의견을 모았고, 남명이 만년에 기거했던 산천재에서 3리 쯤 떨어진 덕천 근처를 院基로 결정하였으며, 1576년에 낙성하여 위패를 봉안하였다.⁴⁾ 남명과 관련된 지역 가운데 이곳이 서원 건립지로 선택된 것은 남명이 만년에 강화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서원을 창건할 때 서원의 규모와 배치, 건물들에 대한 명령은 모두 최영경이 주도하였으며, 서원에 짝할 만한 부속공간의 건립 역시 그의 주관하에 이루어졌다.⁵⁾ 아래의 자료를 보자.

서원의 남쪽에 시내가 있는데, 허공을 머금어 푸른빛이 엉기어 있고 물이 돌아 흐르면서 맑은 못을 이루었으니 여기에 임하면 沂水에서 목욕하는 흥취가 있다. 시내 위에는 桃林이 있는데 간간히 소나무와 능수버들이 있으니 이를 바라보면 무릉도원 같아서 진실로 유상하기에 좋은 경치이다. 지금 우리 최 선생이 번번히 지팡이를 짚고 그 위를 소요하다가 정자를 지어 유식할 장소를 갖추고자 하였으나 서원의 구역이 끝나지 않아 이루지 못하였다. 지난 임오년(1582년) 봄에 비로소 경영하여 정자가 이루어지자 경치가 더욱 아름다워 시냇물은 더욱 맑아 보이는 듯하고, 물고기들은 더욱 즐거운 것 같았다. 이에 覺齋 숙부(필자 주: 河沔)께서 『주역』에 나오는 성인의 洗心하는 뜻을 취하여 정자의 이름으로 삼았으니 대개 觀水의 방법이 있다는 뜻을 살린 것이다.⁶⁾

제시한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정자가 건립된 것은 서원에 위패를

4) 덕천서원의 건립 경위는 김학수(2015)의 논문에 자세하다.

5) 김학수(2015), 15-16쪽 참조.

6) 河受一, 『松亭集』 권4, <德山書院洗心亭記>. “院之南有溪焉 含虛凝碧 匯爲澄潭 臨之有浴沂之興 溪之上有桃林焉 間以松檉 望之如武陵之原 誠遊賞之佳勝者已 今我崔先生 每杖履逍遙其上 欲構亭以備遊息之具 以院役未就未成 越壬午春 始克經營 亭成而勝益奇 溪若增其清 魚若增其樂 於是覺齋叔父取易聖人洗心之義以名亭 盖寓觀水有術之義也”

모시고 6년 후인 1582년이다. 沂水에서 목욕하는 흥취가 있고 무릉도원 같은 곳에 터 잡아 정자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남명 당대에 덕천서원 앞을 흐르는 시내를 桃川이라 하였는데, 이 역시 무릉도원을 염두에 둔 명칭⁷⁾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서원의 남쪽 시냇가에 유식의 공간으로 정자를 짓고 그 이름을 ‘세심’이라고 하였다. 이 정자의 이름을 지은 것은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河沆(覺齋, 1538-1590)이다.⁸⁾ 최영경과 하항은 남명학과 내에서 특별한 위상을 차지하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남명학의 정수를 체득한 제자였기 때문에 스승의 학문을 스승의 자취가 어린 공간에 오롯이 담아내고자 하였다.

정자의 명칭인 ‘세심’은 『주역』 <계사전 상>에 “성인은 이것으로 마음을 깨끗이 씻어 은밀한 곳에 물러나 감춘다.[聖人 以此洗心 退藏於密]”라고 한 데서 가져온 것으로, 마음 수양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건축물이 이곳 덕천서원 외에도 산재하는데, 이들 역시 이러한 의미에서 명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⁹⁾ 또 인용문의 끝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마음을 씻는 행위만을 이야기한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觀水의 의미와 결부시키고 있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관수’는 물이 거울처럼 맑으면 그것을 마음에 비유하거나, 그치지 않는 점을 두고 학문의 지속성을 강조하거나, 물결을 보면서 도의 근원

7) 정우락, 『남명학의 생성공간-용처럼 나타나고 우레처럼 소리쳐라』, 역락, 2014, 279-280쪽 참조.

8) 다만 河澄이 쓴 「德川書院重建記」에 따르면, 처음 정자를 짓고는 세심정이라는 편액을 걸었지만, 나중에 고쳐서 醉醒亭으로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시기와 연유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으며, 현재 남아 있는 시 작품들을 볼 때, 후인들 역시 세심정이라는 명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河澄, 『滄洲集』 권1, <德川書院重建記>. “別構三楹于溪上 爲諷詠之所 扁之曰洗心 後改以醉醒自後”) 또한 현재 남아 있는 세심정과 관련해서는 상세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목재의 상태로 보아 현재의 서원 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이며, 서원 훼손 당시 부근에 옮겨졌다가 도로가 나면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최석기, 『덕천서원』, 경인문화사, 2015, 95쪽 참조.)

9) 본고의 논의대상 외에도 다양한 지역에 동일한 명칭을 지닌 정자가 분포해 있다. 하지만 덕천서원, 남명 등과 연동된 특수성 때문에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경상남도 산청의 세심정만큼 문학작품이 다양하게 창작된 공간은 찾아보기 드물다.

을 떠올리는 것 등으로 이해되어 왔다. 즉 정자의 건립과 명명행위에는 세심정이라는 공간에서 이러한 요령을 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상의 이욕에서 벗어나 도를 즐기며 자연과 합일될 수 있다는 인식이 명명행위에 의해 공간에 부여된 것이다. 이처럼 건물이 건립된 위치나 이름에서 그 지향하는 바가 잘 드러났기 때문에 이 공간은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이들이 방문하고 작품을 창작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게 된다. 아래의 표를 보자.

No	이름	생몰년	작품명
1	河受一	1553-1612	〈洗心亭有感次覺齋叔父韻〉, 〈過德山書院院盡灰獨洗心亭在仍有感〉
2	鄭 樟	1569-1614	〈洗心亭〉
3	朴 綱	1583-1640	〈洗心亭和韻二首〉, 〈題洗心亭戊辰〉
4	河 潛	1597-1658	〈德川書院洗心亭韻〉
5	金 碩	1627-1680	〈次洗心亭韻〉
6	河世熙	1647-1686	〈洗心亭詠晷〉, 〈洗心亭偶吟庚戌正月〉
7	李萬敷	1664-1732	〈洗心亭〉
8	河世應	1671-1727	〈次李息山洗心亭韻〉, 〈次鄭敬甫洗心亭韻〉
9	鄭 杓	1683-1746	〈洗心亭〉
10	河應命	1699-1769	〈洗心亭〉
11	金 墩	1702-1770	〈八月以師友錄事留連德院次洗心亭韻〉
12	李鴻瑞	1711-1780	〈敬題德川洗心亭〉
13	崔鳴大	1713-1774	〈次河台溪集中洗心亭韻〉
14	盧國賓	1747-1821	〈宿德川書院次洗心亭韻〉
15	尹東野	1757-1827	〈登洗心亭次板上韻〉, 〈洗心亭次李息山板上韻〉
16	文正儒	1761-1839	〈次洗心亭韻〉
17	河益範	1767-1813	〈洗心亭次板上韻〉

18	河友賢	1768-1799	〈登洗心亭酬同遊諸公三首〉, 〈洗心亭和梁而兼亭達韻三首〉
19	金冕運	1775-1839	〈洗心亭次板上韻贈別臺下主人曹孟振〉
20	河晉賢	1776-1846	〈洗心亭〉, 〈洗心亭〉
21	朴慶家	1779-1841	〈洗心亭〉
22	李佑贊	1792-1855	〈次李叔眞遊德山諸作五首-洗心亭-〉
23	河範運	1792-1858	〈洗心亭次李息山韻〉, 〈洗心亭次竹陰趙公韻〉
24	朴堽大	?-?(18세기)	〈洗心亭〉
25	崔鼎鎭	1800-1868	〈登德川洗心亭〉
26	河達弘	1809-1877	〈洗心亭次李息山板上韻〉
27	金履杓	1812-1881	〈洗心亭次李息山韻〉
28	成采奎	1812-1891	〈敬次洗心亭板上韻〉
29	崔匡鎭	1816-1885	〈洗心亭次板上韻〉
30	安 鑞	1829-1888	〈登洗心亭次板上韻〉
31	鄭煥周	1833-1899	〈登洗心亭〉
32	權鳳熙	1837-1902	〈登洗心亭次板上韻〉
33	崔淑民	1837-1905	〈洗心亭次板上韻〉
34	宋秉珣	1839-1912	〈登洗心亭次板上韻〉
35	尹炳謨	1839-1934	〈洗心亭次李息山板上韻〉
36	李相敦	1841-1911	〈洗心亭次崔竹陰韻〉
37	金永祚	1842-1917	〈洗心亭〉
38	金顯玉	1844-1910	〈登洗心亭〉
39	李祥奎	1846-1922	〈謹次洗心亭韻〉
40	李正模	1846-1875	〈洗心亭次板上韻〉
41	趙昂奎	1846-1931	〈洗心亭次板上韻〉
42	李義錫	?-?(19세기)	〈洗心亭〉
43	安益濟	1850-1909	〈洗心亭〉, 〈洗心亭〉
44	李準九	1851-1924	〈洗心亭次板上韻〉
45	全基柱	1855-1917	〈登洗心亭〉

洗心亭 관련 한시에 나타난 공간감성과 그 의미(최은주)

46	權基德	1856-1898	〈洗心亭次板上韻〉
47	金會錫	1856-1934	〈登晉陽洗心亭〉
48	安有商	1857-1929	〈與河復卿載華 河采五 成仁述煥寶 共坐洗心亭〉
49	河憲鎭	1859-1921	〈登洗心亭謹次板上韻〉
50	崔鶴吉	1862-1936	〈登德山洗心亭有感〉
51	鄭濟鎔	1865-1907	〈洗心亭次板上韻〉, 〈重修洗心亭韻〉
52	南廷瑀	1869-1947	〈洗心亭〉
53	金基鎔	1869-1947	〈洗心亭〉, 〈登洗心亭〉
54	成煥孚	1870-1947	〈洗心亭〉, 〈洗心亭月夜〉
55	河謙鎭	1870-1946	〈洗心亭次板上韻〉
56	鄭珪錫	1876-1954	〈洗心亭〉
57	李敎宇	1881-1944	〈洗心亭〉
58	周時範	1883-1932	〈登洗心亭〉
59	朴遠鐘	1887-1944	〈洗心亭獨坐〉
60	李泰夏	1888-1973	〈翌日登洗心亭次板上韻〉
61	崔禎模	1892-1941	〈洗心亭次板上韻〉
62	姜聖中	1898-1938	〈洗心亭〉

제시한 표는 세심정 관련 한시를 검색한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시제에 세심정이 드러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¹⁰⁾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세심정과 관련하여 60명이 넘는 작가들이 지은 74제의 작품이 남아 있다. 서원의 창건 이후 함께 지어진 정자였지만, 남아 있는 작품을 창작한 작가들의 생몰년을 살펴보면, 대체로 18세기 이후의 작품들이 다수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덕천서원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10) 시제에 세심정이 드러나는 경우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시구에 세심정이 등장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관련 한시의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시구에 세심정이 등장하는 작품은 필요한 경우 논의를 전개할 때 포함하여 진행할 것이다. 이때 최석기(2017)의 책을 기본자료로 삼되, 한국고전종합DB와 남명학고문헌시스템에서 ‘洗心亭’으로 검색한 자료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거치며 잣더미가 되었는데, 세심정 역시 전쟁의 환란을 피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德川書院重建記>에 “불행하게도 1592년 병화가 일어나 강당과 재실, 정자가 모두 불타 없어지고, 오직 사우와 廚舍만 병화를 면하였다. 그러나 결국 정유년의 병란에 불탔다.”¹¹⁾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그러하다. 또한 “이에 앞서서 醉醒門 밖의 송림 가에 한 간의 초가 정자를 창건하여 洗心亭이라는 옛 이름으로 편액을 달았다. 이는 서원의 유사 柳宗日이 선생의 橡亭의 옛 모습을 본받아 지은 것이다.”¹²⁾라는 구절을 통해 전란 이후에 정자가 새로 지어졌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세심정 관련 한시가 특정 시기에 집중 창작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덕천서원이 1871년에 훼손되었다는 사실이다. 서원은 훼손되었지만 정자는 그 자리에 남아 서원에 대한 감성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 자리잡았음을 19세기에 지어진 작품의 수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시제를 살펴보면,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작품이 차운시의 형태로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영시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하나의 원운시에 의해 특정 공간에 특수한 감성이 부여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누정에는 대체로 공간과 관련하여 오래도록 기억할 만한 중요한 인물의 시판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환경 역시 차운시가 다량 생산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차운시를 제외하고는 시제에 공간의 방문 목적을 드러낸 경우는 많지 않는데, 이는 이 공간이 서원의 부속공간으로서 기능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작품을 남겼지만, 그 가운데 河受一, 河世應,

11) 河澄, 『滄洲集』 권1, <德川書院重建記>. “不幸壬辰兵燹遽起 講堂齋亭盡爲灰燼 惟祠宇廚舍得免 而竟火於丁酉之變” 다만 하수일의 <過德山書院院盡灰獨洗心亭在仍有感>라는 작품에 “난리 후 처음 서원을 찾으니, 시냇가에 오직 정자만 남아 있네.[亂後初尋院 溪頭獨有亭]”라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이 작품으로 보아 그 불탄 시기가 상이할 수도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2) 河澄, 『滄洲集』 권1, <德川書院重建記>. “先此創一間草亭於醉醒門外松林之畔 仍扁以洗心舊號 乃院有司柳宗日象先生橡亭遺制爲也”

河益範, 河謙鎭 등 晉陽河氏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 또한 하나의 특징이다. 이는 하항이 덕천서원의 건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과 이들 진양하씨 가문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지리적 접근성이 높았던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덕천서원의 원생이나 원임 가운데 진양하씨 가문의 비중이 높게 드러난 것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¹³⁾

이처럼 대략적인 특징은 제시한 표를 통해 알 수 있으나, 개별 작품들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창작되었기 때문에 공간을 체험하는 주체나 상황에 따라 그 인식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은 그 공간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풍부하게 해 준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III. 한시를 통해 본 세심정의 공간감성

공간은 단순히 그것만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의 체험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이때 공간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공간감성이다. 공간감성은 공간의 성격과 시간의 흐름, 인식하는 주체인 작가에 따라 다양하게 드러나는데, 낭만감성, 사회감성, 도학감성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⁴⁾ 대략적으로 보자면, 낭만감성은 공간이 지닌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것, 사회감성은 공간을 통해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포착하는 것, 도학감성은 공간에 내재한 도학적 이치를 발견하는 것이다.¹⁵⁾ 이들 모두 공간이 기본 바탕이 되지만, 인간에 의해

13) 진양하씨는 덕천서원에 출입한 성씨 가운데 원임의 배출과 원생의 입록이 가장 많은 가문이다.(박소희, 「17세기 덕천서원 원생의 구성과 변화양상 : -덕천원생록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7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0, 339-342쪽 참조.)

14) 이들 유형에 대한 것은 최은주(「조선시대 영남대로의 공간감성과 문학적 의미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와 정우락(「임란 이후 영남 지식인의 사상적 동향과 감성의 유형」, 『嶺南學』 7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0)의 논문에 자세하다.

15) 최은주, 「낙동강에 대한 공간감과 그 의미」, 『낙동강과 문화어문학』, 역락, 2022.

다른 의미를 부여받으며 감성이 생성된다. 이러한 감성은 공간을 체험하는 주체가 인식하는 바와 문학창작활동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리 드러나게 된다. 이는 특정 공간이 하나의 감성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공간이 지닌 기본적인 환경이나 상황 등에 따라 특정한 감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한다. 본 장에서는 세심정이라는 공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감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세심정은 처음 건립할 때부터 덕천서원에 짝할 만한 공간으로 지어진 정자이다 보니, 서원을 방문하거나 기억하는 이들이 무조건 거쳐가는 공간이었고, 이에 따른 감성이 생성되는 공간이었다. 보통 누정은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자리하게 된다. 유상하기 좋은 공간에 정자를 지은 것은 정자에 올라 경치를 감상하며 소요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낭만감성은 누정에서 창작된 작품의 경우 필연적으로 생성된다.

光景無邊好	경관이 끝없이 좋으니
脩然興有神	시원스레 흥취가 신명나네
如何良觀夜	어찌하면 밤에도 잘 볼 수 있을까
又是九秋辰 ¹⁶⁾	또한 가을 구월의 좋은 계절이네

河友賢(豫菴, 1768-1799)이 세심정에 올라서 쓴 작품이다. 시제를 보면 당시 혼자 세심정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함께 유람하는 여러 사람과 창수하며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제시한 작품은 전체 3수 가운데 첫 번째 수로, 정자에 올라 감상하는 경치가 신명날 만큼 좋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혼자여도 유식하기에 좋은 공간인데, 함께 유람하는 이들이 있어서 더욱 詩興이 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마지막 수에서 “풍월을 기약하지 않았는데, 이번 유람 얻기 어려운 풍경 구경하네. 시를 지어 서로 들고 주며, 베껴 써서 먼 훗날 다시 보려 하네.”¹⁷⁾

16) 河友賢, 『豫菴集』 권1, <登洗心亭酬同遊諸公>. 본고에서 인용한 작품의 번역은 최석기(2017)를 참고하였다.

17) 河友賢, 『豫菴集』 권1, <登洗心亭酬同遊諸公>. “風月不期有 茲遊正得難 詩成相把贈 擬作後來看”

라고 읊은 것을 보면 당시의 유람을 즐거워하며 오래도록 기억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세심정이 지닌 명칭과 위치에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창작된 작품이다. 물론 두 번째 수에서 남명을 잠깐 떠올리기는 하나, 이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 최소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작품을 쓴 하우현은 河世熙(1647-1686)의 현손이기도 한데, 하세희 역시 세심정이라는 공간의 건립 의도나 명칭 등에서 생겨난 전형성에 좌우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물 위의 오리나¹⁸⁾, 소나무에 걸린 달¹⁹⁾을 노래하며 공간이 지닌 전형성보다는 정자를 둘러싼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작품을 창작한 것에서 그러한 점을 잘 볼 수 있다. 이처럼 낭만감성은 공간 자체가 지닌 자연적 면모와 자연스러운 정서에 기반하기 때문에 세심정에서 경치를 완상하면서 흥취를 드러내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그러하지만, 명명행위는 그것의 특징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상징성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정 역시 ‘세심’이라는 행위가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명칭에 의한 감성의 제약이 일차적으로 일어나는 것 역시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세심정이 덕천서원의 건립과 연장선상에서 기획된 건물이라는 사실을 떠올려본다면 이들이 지닌 상징성과 관련하여 특정한 감성, 즉 도학감성이 생성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도학감성은 공간을 자연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의도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공간을 이념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세심정은 그 명칭에서부터 마음 수양을 내포하였기 때문에 자연을 관념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다음의 작품을 보자.

(가)

不耐塵心惱

속세의 번뇌 견딜 수 없어

18) 河世熙, 『石溪遺稿』 권1, <洗心亭詠鳧>.

19) 河世熙, 『石溪遺稿』 권1, <洗心亭偶吟庚戌正月>.

洗心亭上臨
烟霞無俗氣
山水有清音
靜對湯盤浴
退藏義易深
如吾長在此
可復本然心²⁰⁾

세심정에 올라 임하네
연하에는 속된 기운 없고
산수에는 맑은 소리 들리네
고요히 탕임금 목욕하던 대야 대하고
물러나 복희씨의 심오한 『주역』 간직하네
만약 내가 장구히 이곳에 머문다면
본연의 마음 회복할 수 있으리

(나)

山川寧有變
天地可竊存
寄語遊亭客
日新乃滌煩²¹⁾

산천이 어찌 변함이 있으리오
천지는 곤궁해도 보존될 수 있네
정자를 찾아온 나그네에게 말하노니
날로 새롭게 하여 번뇌를 씻어버리게

(가)는 朴慶家(鶴陽, 1779-1841)가 쓴 작품이다. 먼저 이 공간을 속세와 분리시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세심정을 방문한 이유부터 속세의 번뇌를 견딜 수 없어서라고 밝힌 것에서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난다. 앞서 무릉도원으로 이미지화되는 곳에 정자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떠올려 본다면, 정자에서 바라보는 공간은 작자에게는 일종의 별세계, 즉 이상향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정에서 바라본 산수에는 속된 기운[俗氣]이 없고 맑은 소리[清音]”만 가득한 것으로 표현된다. 이는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읊은 것이 아니다. 5-6구의 “湯盤”과 『주역』에서 이러한 부분이 잘 드러난다. 5구의 탕반은 탕임금이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해 “진실로 어느 날인가 새로워졌거든 날로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苟日新 日日新 又日新]”라는 銘을 새겼다고 전해오는 목욕하던 대야이다. 결국 박경가가 꿈꾸던 것은 단순히 떠날 낯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이상적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 공간은 ‘세심’이라

20) 朴慶家, 『鶴陽集』 권2, <洗心亭>.

21) 鄭煥周, 『薇山遺稿』 권1, <登洗心亭>.

는 행위를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에 자신의 본심을 잃지 않고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鄭煥周(微山, 1833-1899)가 세심정에 올라 쓴 (나)의 작품 역시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박경가가 작품의 시작에서부터 공간의 방문 사유를 밝혀 그 인식을 드러낸다면, 정환주는 마지막 구에서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드러내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이 작품에서 작자는 정자에 올라 주변 경관을 묘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신의 상황 등을 읊지 않고 이 공간의 명칭과 공간 자체에만 주목하는 모습을 보인다. 3구의 ‘遊亭客’은 이 공간을 방문하여 작품을 짓고 있는 자신인 동시에 이 작품을 읽는 다른 이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각각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 공간에서 해야 할 행위는 한 가지로 명확함을 드러낸다. 즉 세심정을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이곳이 번뇌를 씻어버리고 마음을 본원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성수양이 아닌 다른 행위는 이 공간에서 필요치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박경가나 정환주의 작품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들의 작품에서도 수없이 드러난다. 朴堉大의 “푸른 그림자 너울거리고 달은 소나무에 걸렸는데, 맑은 풍광은 하나의 티끌도 용납하지 않는 듯하네. 어찌해야 정자 앞의 물 떠다가, 인간세상 속인의 흥금을 다 씻어낼 수 있을까.”²²⁾나 李佑贊(月浦, 1792-1855)의 “큰 잠에서 깨어난 허령 불매한 경지, 우주가 이 정자에 보존되어 있네. 진경은 맑기가 이와 같으니, 이곳 아니면 세상 번뇌 어찌하리.”²³⁾와 같은 작품에서도 비슷한 감성이 생성됨을 볼 수 있다. 이 공간을 단순히 기이한 절경이어서 속세와 다른 공간이 아니라, 우주의 이치를 머금고 있어 마음을 씻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朴細(無悶堂, 1583-1640)은 “제군들 물결처럼 산수 찾아 떠나지 말고, 곧바로 세심

22) 朴堉大, 『安敬窩遺稿』 권1, <洗心亭>. “綠影婆娑月入松 清光不許一塵容 何當挹取亭前水 洗盡人寰俗子胸”

23) 李佑贊, 『月浦集』 권1, <次李叔眞遊德山諸作>. “虛靈大寐覺 宇宙此亭存 眞境清如許 微斯奈世煩”

정 앞에 이르러 마음을 씻게나.”²⁴⁾라고 하여 단순히 자연의 승경을 즐기며 외물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을 씻어서 바르게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인 바로 이곳을 방문해야 함을 드러낼 수 있었다.

이처럼 도학감성이 주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었던 데에는 세심정의 명칭과 건립 경위 등이 주도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렇다면 덕천서원과 뿔수 없는 공간임을 인지하였을 때, 남명에 대한 기억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다음의 작품을 보자.

方丈煙霞界	방장산은 연하 덮힌 세계
天開道德門	하늘이 도덕문을 열어놓았네
滄洲千古趣	창주는 천고의 지취이고
濂洛一般源	염락은 한 가지 근원이네
氣節高山仰	기절은 높은 산처럼 우러르고
精神皓月存	정신은 밝은 달처럼 보존되었네
溶溶亭畔水	도도히 흐르는 세심정 가 물이
宜濂世塵煩 ²⁵⁾	마땅히 세속 번뇌 씻어주리라

세심정을 읊은 李鴻瑞(1711-1780)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앞선 작품들과 다르게 정자가 위치한 개울가에만 시선을 두지 않고, 지리산 전체로 시선을 확대하여 시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이 공간에서 생성된 감성이 단순히 정자와 그 이름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어지는 3-4구와 5-6구에서 작자가 이 공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등장한다. 먼저 3-4구에서 “滄洲”, “濂洛”이 등장하는데, 창주는 朱熹가 거주하면서 강학하던 곳의 지명이고, 염락은 염계에 살던 周敦頤와 낙양에 살던 程顥·程頤를 가리키는 말이다. 송대 성리학자를 이 공간에서 떠올린다는 것은 도맥이 이곳으로 이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5-6구에서 남명이나 선생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기절과 정신을 보여준 인물은 바로 남명임을 알 수

24) 朴綱, 『無悶堂集』 권1, <題洗心亭>. “諸君莫浪尋山水 直到亭前要洗心”

25) 李鴻瑞, 『霞窩公遺稿』, <敬題德川洗心亭>.

있다. 즉 송나라 이학을 집대성한 인물들의 도맥이 높고 밝은 기절과 정신을 가진 남명에게로 계승되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남명의 기운이 서려 있는 이 세심정이라는 공간 역시 단순한 자연공간이 아닌 도학 감성이 생성되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住馬步亭畔	말을 멈추고 정자 가를 거니니
頭流第一門	두류산 으뜸가는 문이네
琴書雲谷社	거문고와 책은 운곡의 정사 같고
花樹武陵源	꽃과 나무는 무릉도원 같네
德院威儀肅	덕천서원의 위용 엄숙하고
天齋道義存	산천재엔 도의가 보존되어 있네
淸風時拂袂	맑은 바람 때로 소매를 펄럭거리니
長嘯謝塵煩 ²⁶⁾	깊이 읊조리며 속세 번뇌 사절하네

李相敦(勿齋, 1841-1911)이 지은 작품 역시 앞선 작품처럼 이 공간을 방문해 남명을 떠올린다. 이 작품 역시 지리산 전체를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며, 세심정을 지리산의 으뜸가는 문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인식에는 세심정이 단순히 개별의 정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명과 남명이 유람했던 지리산, 그리고 그를 기리며 세운 덕천서원이 연동되어 있음이 내포되어 있다. 이는 3구에서 남명의 자취가 남은 곳을 주희가 은거하던 운곡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앞서 제시한 이홍서의 작품에서와 같이 남명의 도학이 주자에 연원을 두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전반부에서는 주변 경관에 집중하였다면, 5-6구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남명에 대한 기억이 재생되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덕천서원은 물론, 남명이 후학을 양성하며 노년을 보냈던 산천재까지도 함께 시구로 끌어와 그의 기절과 정신이 여전히 이 공간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처럼 남명에 대한 존모가 단순히 추앙하고 그리워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 것은 다른 작품에서도 다양하게 드러난다. “선생은 곧장 이락의 정

26) 李相敦, 『勿齋文集』 권1, <洗心亭次崔竹陰韻>.

맥을 탐구했고”²⁷⁾, “곧장 관중과 낙양의 문으로 들어가, 멀리 사수의 근원까지 접하였구나”²⁸⁾라고 읊은 것들이 그러한 예이다. 또한 남명을 통해 이어지는 조선의 도맥은 세심정 아래로 끊임없이 물이 흐르듯이 이곳으로 흐르며,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방문하는 이들에게 번뇌를 씻어 마음을 보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남명을 떠올리면서 그와 관련된 자신의 선조나 선현을 떠올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河晉賢(容窩, 1776-1846)이 세심정 기문을 썼던 자신의 선조 하수일을 떠올리며 “우리 선조 이 정자 기문을 쓰셨는데, 그 문장 해와 별처럼 빛나네.”²⁹⁾라고 읊거나 덕천서원의 건립을 주도하였던 최영경을 떠올리는³⁰⁾ 등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선조나 선현을 기억하거나 추송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학문적 정통성이 그 바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세심정 관련 한시를 살펴볼 때, 이 공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감성은 낭만감성과 도학감성임을 알 수 있었다. 한시의 기본적인 작시 경향과 무릉도원을 연상하게 하는 공간에 건립된 정자라는 점에서 낭만감성이 생성되었고, 정자의 명칭이 ‘세심’이라는 점과 그 위치와 건립의 목적이 남명의 덕천서원과 긴밀한 관련을 지닌다는 점에서 도학감성이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IV. 세심정에 나타난 공간감성의 의미

앞선 장에서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세심정이라는 공간에서 생성된 감성을 살펴보았다. 이 공간에서 주도적으로 생성된 것은 낭만감성과 도학

27) 金敬, 『默齋集』 권1, <八月以師友錄事留連德院次洗心亭韻>. “直探伊洛脈”

28) 文正儒, 『東泉集』 권1, <次洗心亭韻>. “直抽關洛鍵 遙接泗洙源

29) 河晉賢, 『容窩遺集』 권1, <洗心亭>. “吾祖記斯亭 文章炳日星”

30) 河晉賢, 『容窩遺集』 권1, <洗心亭>. “追想愚翁多曠惑”

감성이었다. 그중에서도 도학감이 우세하며, 낭만감성은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세심정의 명칭과 위치, 건립경위가 이 공간을 인식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동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納納乾坤兩脚媒	광대한 천지 두 다리로 걸어
北臨長白又南廻	북으로 장백산 올랐다가 또 남으로 왔네
冥翁道德百年後	남명 선생의 도덕은 백 년 뒤까지도 이어지니
方丈風烟萬壑來	방장산 바람과 운무 온갖 골짜기서 불어오네
天近秀峯頭上尺	하늘은 빼어난 봉우리에 가까워 머리 위 한 자
地窮滄海眼中杯	땅은 창해에 닿아서 술잔처럼 보이네
洗心亭上悄無語	세심정 위에서 처량한 마음에 말이 없으니
靜得幽悰可自裁 ³¹⁾	고요한 데서 그윽한 마음 얻어 재단할 수 있네

많은 이들에게 차운되었던 李萬敷(息山, 1664-1732)의 작품이다. 개인적 상황과 이 공간의 자연환경을 읊긴 하였으나, 중요한 것은 이 공간에서 떠올리는 인물이 남명이라는 사실이다. 18세기에 이만부는 덕천서원 원장으로 초빙되는데, 이 시기 1721년과 1724년 4월에 덕천에 와 알묘하고³²⁾ 주변 경승을 유람하였다. 따라서 이 작품은 당시 이만부가 南遊하였을 때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을 차운한 시들의 제목에 따르면, 이 시가 세심정에 현판으로 걸려있었음을 알 수 있다. 누정제영시의 경우 작품이 뛰어나 당대에 널리 알려져 회자되는 작품도 있었지만, 현판에 걸려 있는 작품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자에 방문하여 작품을 짓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품이 새겨진 현판은 실제 공간을 방문한 이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주게 된다. 앞선 이에 의해 생성된 감성이 그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31) 李萬敷, 『知命堂遺集』상, <洗心亭>. 이 작품은 이만부의 문집에는 보이지 않고, 하세웅의 『知命堂遺集』에 원운으로 부기되어 있다. 이만부를 덕천서원 원장으로 초빙하는 데 실질적 역할을 한 사람이 하세웅이었다.

32) 최석기, 『덕천서원』, 경인문화사, 2015, 108쪽.

따라서 이 작품을 차운한 시들은 대체로 남명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河範運(竹塢, 1792-1858)이 “흐르는 강은 선생을 따라 떠나가지 않았고”³³⁾라고 읊은 것 등이 그러한 예이다. 물론 이 공간이 지닌 특성 자체가 남명에 대한 기억과 관련이 있지만, 그러한 동일 감성의 축적과 재생에는 원운시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은 분명하다 할 수 있다.

이만부가 마지막 구에서 이 공간에서 마음을 재단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만부는 서원의 원장으로 재임했던 시기에 이곳을 방문하였으므로, 서원의 훼손이라는 사건을 겪지 않았다. 하지만 河憲鎮(克齋, 1859-1921)과 같은 경우는 서원의 훼손 이후 이곳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차가운 운무 서원과 담장을 다 덮어 버리니, 마음의 실마리 아득해 끝내 재단하지 못하겠네.”³⁴⁾라고 한 바 있다. 앞선 시기 덕천서원을 비롯한 남명의 추모학술공간이 활발하게 기능하였을 때에는 마음을 재단할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서원의 훼손 이후 방문한 세심정은 덕천서원의 훼손을 떠올리게 하여 마음을 재단할 수 없는 공간으로 변이되어 인식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세심정이 서원의 경내 공간은 아니지만, 이들 공간은 서로 간의 인식에 중요구성요소로 기능하였다. 예컨대 權重道(退庵, 1680-1722)가 덕천서원을 읊은 시에서 “입덕문 열려 있어 정로를 찾을 수 있고, 세심정 에스러워 높은 명성 우러를 수 있네.”³⁵⁾라고 읊은 것 등을 보면 서원과 세심정은 동일한 범주 내의 공간으로 함께 인식됨을 알 수 있다. 또 李佑贊의 <次李叔眞遊德山諸作五首>과 같이 이 지역을 유람하며 쓴 작품을 살펴보면, 入德門-山天齋-洗心亭 등이 각각 하나의 소재목으로 선택되어 창작되기도 하는데, 이는 이들 공간이 지역 내 개별 공간이면서도 남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공간임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이 훼손된 이후에 지어진 시에서 “서원의 건물

33) 河範運, 『竹塢集』 권1, <洗心亭次李息山韻>. “滄江不逐先生去”

34) 河憲鎮, 『克齋遺集』 권1, <登洗心亭謹次板上韻>. “寒煙鎖盡宮牆沒 心緒悠悠竟莫裁”

35) 權重道, 『退庵集』 권1, <德川書院次申上舍命考韻>. “入德門開尋正路 洗心亭古仰高名”

다 무너져 모두 발두둑이 되었으니, …(중략)… 세심정 아래에는 시냇물 쉬지 않고 부단히 흐르네.”³⁶⁾라고 읊은 것을 보면 서원은 이미 사라지고 없지만, 세심정은 여전히 남아 아래로 흐르는 강물과 함께 시간은 쉽없이 흘러감을 대비하여 나타내는 경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덕천서원의 훼손이 공간을 인식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은 아니다. 다음의 작품을 보자.

亭後青山出	정자 뒤 푸른 산이 솟아 있고
亭前碧水深	정자 앞 푸른 물이 깊네
聞名亭已好	이름 듣고 정자를 이미 좋아했으니
聊與細論心 ³⁷⁾	함께 마음을 세세하게 논해보세

제시한 작품은 金顯玉(山石, 1844-1910)이 세심정에 올라 쓴 것이다. 그는 산청과 하동을 중심으로 활동한 학자로 奇正鎭의 문인이다. 19세기 경상우도 노사학과는 남명의 영향력이 남아 있는 지역적 특수성과 기정진의 영향으로 남명 존숭 의식이 강하게 나타난다. 위 작품을 쓴 김현옥의 경우 남명의 유품을 오래도록 경앙하여 뇌룡정을 방문하기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³⁸⁾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세심정을 방문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남명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듯하나, 단순히 경관을 읊고 그 명칭에 대해서만 인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세심정을 둘러싼 산천 역시 ‘靑山’과 ‘碧水’라는 푸른 시각적 이미지로만 표현할 뿐, 앞선 작품에서처럼 지리산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떠올리지 않는다. 3구에서 공간을 방문하기 이전부터 그 정자의 명칭만으로도 좋아했음을 밝혀, 유학의 실천적 사상을 계승하는 측면에서 마음 수양을 중요시하며 이것이 선제적으로 작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安益濟(西崗, 1850-1909)는 여기서 나아가 세심정을 둘러싼 공간을

36) 全基柱, 『菊圃遺稿』 권1, <過德川院有感>. “宮牆顏盡鞠爲阡 洗心亭下水漣漣”

37) 金顯玉, 『山石集』 권1, <登洗心亭>.

38) 김성희, 「山石 金顯玉의 생애와 시세계」, 『남명학연구』 68,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20, 278-279쪽 참조.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서원은 사라졌지만, 남명의 도덕이 산천에 보존되어 있다고 여긴 것이다. 이에 세심정에 허령한 기운이 감돌고, 강은 활발한 근원을 머금은 공간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항상 거처하는 사람들은, 가슴속 번뇌를 알지 못하리.”³⁹⁾라고 읊은 바 있다. 안익제는 1903년 8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한 달 정도 지리산권역을 유람하고 유람록과 연작기행시를 남긴 바⁴⁰⁾ 있는데, 세심정을 읊은 작품은 당시 유람에서 지은 것으로 보인다. 창작시기로 보아 서원의 훼손 이후 지은 작품이지만, 그것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이 공간이 현묘한 이치를 머금은 공간이므로 마음을 집중하고 흐트러짐이 없을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는 안익제가 학파적 연계성을 지니고 있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⁴¹⁾ 이러한 부분이 보다 강력하게 드러나는 다음의 작품을 보자.

得失君休說	득실에 대해 그대는 말하지 말라
登亭一洗心	정자에 올라 한번 마음을 씻었네
遂碑可三復	신도비는 반복해 읽을 만하니
巴老蓋知深 ⁴²⁾	파로는 아마도 깊이 안 듯하네.

李教宇(果齋, 1881-1944)의 작품이다. 이 공간에서 마음을 씻는 행위는 다른 작품들과 다를 바가 없다. 다만 3구에서 남명의 신도비를 거론한 점이 다른 작품들과 차이를 보이는 점이라 하겠다. 남명의 신도비를 떠올린 것은 이 공간에 축적된 남명에 대한 기억과 관련 짓는다면, 특별할 것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교우가 이 공간에서 떠올린 것은 宋時烈(尤庵, 1607-1689)이 지은 남명의 신도비라는 점이다. 이는

39) 安益濟, 『西岡遺稿』 권1, <洗心亭>. “此地常居子 不知胸裡煩”

40) 강정화, 「서강(西崗) 안익제(安益濟)의 지리산 인식과 표현 특징」, 『동방한문학』 77, 동방한문학회, 2018, 197-198쪽 참조.

41) 안익제는 家學의 전통을 독실하게 계승하고, 한주 이진상의 문도들과 절친하게 교류하였다고 한다.(강정화, 위의 논문, 198쪽 참조.)

42) 李教宇, 『果齋集』 권3, <洗心亭>.

이교우가 鄭載圭(老柏軒, 1843-1911)의 문인인 것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당시 허목과 송시열이 각각 쓴 남명의 신도비를 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재규는 허목이 지은 비문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송시열이 쓴 비문에 대해서 찬탄을 아끼지 않은 바 있다. 이에 1903년에 남명의 후손들은 묘소 아래 있던 허목이 쓴 신도비 대신 송시열이 지은 신도비를 세우고자 추진⁴³⁾하였는데, 이교우의 시는 이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교우는 이 공간에서 특별히 남명에 대한 존모를 드러내거나 기억하지 않고, 송시열이 쓴 비문을 반복해서 읽을 만하다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스승인 정재규의 의견에 동조한다. 즉 그에게 이 공간은 스승에 대한 존모심을 드러내는 한편, 그 스스로 지니고 있던 송시열에 대한 존숭⁴⁴⁾ 역시 함께 드러내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동일한 공간이지만, 작가의 개별 창작상황에 따라 기억과 존숭의 대상이 변이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세심정에 대한 공간감성은 작가와 작품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다양하게 변형되면서도, 그 기저에는 남명과 마음을 바탕으로 한 도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정자의 명칭에서 지향하는 바가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며, 그 건립 취지가 남명과 덕천서원에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끊임없이 물이 흐르는 곳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치의 오묘함을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이자, 도맥이 흐르는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 따라서 단순히 정적인 순간에서의 고요한 경지를 체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마음의 수양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념화되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명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敬義는 극기복례를 통해 마음을 본원의 상태로 회복하는 심성수양을 말한 것⁴⁵⁾인데, 이러한 인식을 바탕에 두고 시간적 흐름

43)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정은 허권수(2013)의 논문에 자세하다.(허권수, 「南冥神道碑와 後世 儒林들의 論難」, 『남명학연구』 13,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13.)

44) 이교우는 송시열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전해진다.(김낙진, 「果齋 李教宇의 主理學 지향과 衛正의 삶」, 『남명학연구』 68,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20.)

45) 최석기(2015), 257쪽.

과 개별 상황에 따라 공간감성이 재생산되면서 다양한 작품이 창작될 수 있었던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세심정 관련 한시를 통해 세심정의 공간감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세심정은 산청의 덕천서원 근처에 위치했던 정자로, 그 명칭에서부터 이 공간이 추구하고자 했던 바를 알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덕천서원이 남명의 사후에 그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 정자에서 생성되는 감성이 남명과 관련한 것이 다수를 이룰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세심정과 관련된 작품은 서원과 정자가 세워진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60명이 넘는 이들에 의해 창작되었다. 하지만 서원의 창건과 함께 지어진 정자였으나, 전쟁의 환란 등으로 인해 현재 남아 있는 작품은 대체로 18세기 이후의 작품들이 다수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덕천서원의 훼손이 이루어진 19세기 이후에도 다수의 작품이 창작되었다는 사실은 이 공간이 그와 관련된 감성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 자리잡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작품을 통해 살펴본 세심정은 도학감성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낭만감성이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낭만감성은 한시의 기본적인 작시 경향과 무릉도원을 연상하게 하는 공간에 건립된 누정이라는 점에서 생성되었다면, 도학감성은 누정의 명칭의 ‘세심’이라는 점과 그 위치와 건립의 목적이 덕천서원과 긴밀한 관련을 지닌다는 점에서 주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었다. 건립 목적이 분명하고 명칭에 의한 인식이 주도적으로 작동하였기 때문에 사회감성 등은 거의 생성되지 못한 특징이 있었다. 즉 세심정은 그 누정의 위치와 명칭에서 생성되는 감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한 곳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남명 사후 그가 추구했던 사유와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하나의 구심체 역할을 하던 덕천서원 중심의 문화공간에서 세심정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음을 본원의 상태로 회복하는 심성수양을 통해 남명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敬義를 지속적으로 계승해 나가고자 하였고, 이러한 인식이 공간에 내재되어 끊임없이 작동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문학작품이 생성된 개별 공간들을 논의의 대상으로 확장하고, 이들 간 세밀한 비교를 거친다면 당대의 모습을 보다 생생하게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2024년 05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05월 27일부터 06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06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權重道, 『退庵集』
金墩, 『默齋集』
金顯玉, 『山石集』
文正儒, 『東泉集』
朴慶家, 『鶴陽集』
朴綱, 『無悶堂集』
朴垕大, 『安敬窩遺稿』
安益濟, 『西岡遺稿』
李教宇, 『果齋集』
李相敦, 『勿齋文集』
李佑贊, 『月浦集』
李鴻瑞, 『霞廬公遺稿』
全基柱, 『菊圃遺稿』
鄭煥周, 『薇山遺稿』
河範運, 『竹塢集』
河世應, 『知命堂遺集』
河世熙, 『石溪遺稿』
河友賢, 『豫菴集』
河晉賢, 『容窩遺集』
河愷, 『滄洲集』
河憲鎭, 『克齋遺集』

- 강정화, 「서강(西崗) 안익제(安益濟)의 지리산 인식과 표현 특징」, 『동방한문학』 77, 동방한문학회, 2018, 193~230쪽.
- 김낙진, 「果齋 李教宇의 主理學 지향과 衛正의 삶」, 『남명학연구』 68,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20, 349~374쪽.
- 김성희, 「山石 金顯玉의 생애와 시세계」, 『남명학연구』 68,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20, 257~291쪽.

- 김학수, 「덕천서원(德川書院): 경의학(敬義學)을 지향한 조선의 학술문화공간」, 『남명학』 20, 남명학연구원, 2015, 7~67쪽.
- 박소희, 「17세기 덕천서원 원생의 구성과 변화양상: -덕천원생록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7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0, 331~36쪽.
- 정우락, 「낙동강과 그 연안지역의 공간 감성과 문학적 소통」, 『한국한문학연구』 53, 한국한문학회, 2014, 173~213쪽.
- 정우락, 『남명학의 생성공간-용처럼 나타나고 우레처럼 소리쳐라』, 역락, 2014.
- 정우락, 「임란 이후 영남 지식인의 사상적 동향과 감성의 유형」, 『嶺南學』 7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0, 7~56쪽.
- 최석기, 『덕천서원』, 경인문화사, 2015.
- 최석기, 『남명순례길의 노래2 도학의 성지, 덕산에서』, 경인문화사, 2017.
- 최석기, 「덕천서원의 공간과 명칭에 담긴 의미」, 『남명학연구』 55,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17, 1~35쪽.
- 최석기, 「지리산 덕산동의 文化元型和 名所의 의미」, 『남명학연구』 63,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19, 141~180쪽.
- 최은주, 「조선시대 영남대로의 공간감성과 문학적 의미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최은주, 「낙동강에 대한 공간감성과 그 의미」, 『낙동강과 문화어문학』, 역락, 2022.
- 허권수, 「南冥神道碑와 後世 儒林들의 論難」, 『남명학연구』 13,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13, 119~164쪽.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남명학교문헌시스템(<http://nmh.gnu.ac.kr/>)

Abstract

Spatial Recognition and its Meaning in the poem related to Sesimjeong(洗心亭)

Choi, Eun-j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patial sensitivity and meaning created in the space through related poems, paying attention to Sesimjeong(洗心亭) of Sancheong, Gyeongsangnam-do as a literary creation space. Sesimjeong(洗心亭) was a pavilion located near Deokcheon-seowon(德川書院) in Sancheong, Gyeongsangnam-do, and from its name, it can be seen that the space wanted to aim for. In addition, since Deokcheon-seowon(德川書院) is a space to honor Nammyeong(南冥) Cho Shik's(曹植), it can be assumed that many of the sensibilities generated in this pavilion are related to Nammyeong(南冥).

Space is closely related to human experience, and the interaction that occurs between space and humans is spatial sensitivity. Spatial sensitivity is reveal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space, the passage of time, and the subject of recognition, the artist, and this aspect can be seen well in the 74 Chinese poems written by more than 60 artists related to the remaining meticulous process.

Sesimjeong(洗心亭) was a space where DoHak(道學) sensibility was mainly created in that the name of the pavilion was "Sesim(洗心)" and its location and construction purpose were closely related to Deokcheon-seowon(德川書院). While most of the pavilion's works are created around the landscape, Sesimjeong(洗心亭)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 sensibility generated by the location and name of the pavilion is very important. In addition, the majority of works created

after the 18th century have been made, indicating that Sesimjeong(洗心亭) has become a space that continues to evoke the sensibility of the Seowon after the demolition of Deokcheon-seowon(德川書院) in 1871. This clearly shows that Sesimjeong(洗心亭) is included in the cultural space centered on the Seowon, which served as a central body to inherit the thoughts and values he pursued after the death of Nammyeong(南冥).

keywords :

Sesimjeong(洗心亭), mind[心], Nammyeong(南冥) Cho Shik's(曹植), Deokcheon-seowon(德川書院)

